

승리하라 대한민국~ “월드컵송으로 함께 응원해요”

불자 뮤지션 비무티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앨범으로 대중들을 감동시킨 비무티(vimutti, 본명 홍범석)가 월드컵 응원송으로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그가 작사·작곡·편곡한 ‘승리하라, 대한민국’은 록사운드를 기반으로 정동하, 김바다의 보이스가 환상의 조합을 이루며 ‘KBS 국민 월드컵송’으로 선정됐다. 비무티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신나고 박진감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에요. 이와 잘 어울리는 록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든 음악을 그룹 시나위의 보컬 출신 김바다와 부활의 前보컬 정동하가 불렀죠. 주로 뛰면서 하는 축구응원의 박자에 맞춰, 한번 들으면 쉽게 각인 되어 따라 부르기 쉽고,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리하라, 대한민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 중계는 물론 다양한 영상들과 조화를 이뤄 전파를 탈 예정이다. 비무티는 12년전부터 이 곡의 큰 틀을 마련하고 조금씩 완성해 나갔다고 한다.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월드컵송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쉬위야하고 신나고 박진감 넘쳐야 해요. 또 감동적이어야 되고 유치하지 않고 세련돼야 하죠. 12년 동안 곡을 연구해 월드컵송이 완성됐죠. 곡을 완성하고 나니 정동하, 김바다를 만나게 됐고 최고의 세션들이 참여해 월드컵송이 탄생하게 됐죠. 스님, 신부님 수녀님들도 함께 어울려 뛰면서 응원할 수 있을 만큼 대중 모두가 월드컵송으로 신나는 월드컵이 됐으면 합니다.”

무장르 아티스트를 표방하는 그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찬불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미소, 부처님오신



불자 뮤지션 비무티가 ‘월드컵송’을 작사·작곡·편곡해 주목받고 있다.

**KBS 공식 월드컵송 작곡
정동하·김바다 보컬 참여
세계적 찬불가 작곡도 발원**

날 등이 실린 앨범에는 대중음악계의 유명 작·편곡자는 물론 기타리스트 함춘호, Tommy Kim, 첼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주역 가수들과 엔지니어 등이 참여했다. ‘Buddhist Pop & Mind Healing Pop’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음반은 찬불가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교 음악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찬불가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음반입니다. 또한, 불자 비불자 모두 감동 받을 수 있고 함께 즐

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죠. 사실 기독교의 CCM이 너무 다양화 되고 발전된 반면 찬불가는 불교 안에만 머물러 있고, 노래 부를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 음악이 불교 음악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무티는 연세대 성악과와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를 거쳐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성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음악을 섭렵한 그는 2010년 12월 ‘클래식컬럽’ 앨범 ‘Rest’를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비무티의 이런 왕성한 활동 뒤에는 불자로서의 수행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해탈을 의미하는 예명 비무티(vimutti) 역시 그의 법명에서 가져왔을 만큼 그는 불자 음악인임을 표방한다.

“아버지께서는 전국불교신도회 회장을 하실만큼 불심이 깊으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미국 유학시절 인디애나대 불교학인 학생회를 만들어 금강경 독송을 할만큼 열심히 활동했죠. 5년 전부터는 법왕정사를 다니며 절수행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 2만배 수행을 하는 특별한 경험도 했죠.”

매일 절수행과 초기경전 독송 등 두 시간의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비무티. 그는 매일발 3천배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그는 불교음악이 세계인의 음악이 되기를 발원한다. “SNS에 올린 제 찬불음악을 듣고 감동적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음악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음악으로 받은 감동이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영어로 발매해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hjs@hyunbul.com



1집 녹음 당시 첼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승리하라 대한민국’ 앨범 자켓

학문과 차의 향기 돋보이는 우정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㉔ 강진 백련사 ㉔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의 시는 백련사의 의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금릉의 옛 절 쓸쓸하여 고요하다’는 표현에서 조선 후기 백련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한 때 백련결사로 수행의 일가를 이루었던 옛 절이 ‘억불승유’의 시절 인연 속에 초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해장 스님과 다산의 만남

강진은 다산의 유배지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학문과 문학을 더욱 연마했기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유배생활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던 공간이 바로 백련사다. 백련사의 스님 혜장(惠藏)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다도(茶道)를 통한 심신의 안정이 그의 학자적 정신을 고양시켰던 것이다.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간 다산은 5년 뒤에 백련사로 찾아가 혜장 스님을 만났다.

편편청운식장천(片片淸雲拭 天)
제전호접백편편(簪田蝴蝶白翩翩)
우중옥후초소로(偶從屋後樵蘇路)
수과원두광맥전(遂過原頭橫麥田)
궁해봉춘지노지(窮海逢春知老至)
황촌무우각승현(荒村無雨覺僧賢)
차심도령유관의(且尋陶令流觀意)
여설산경일어편(與說山經一二篇)

구름조각이 닳아냈는지
바다하늘 활짝 맑고
네이 발에 나비들도 하얗게 휘날 나는데
우연히 걸 뒤의 나무꾼 길을 따라
드디어 들머리 보리밭을 지나왔네.
바다 끝에서 봄 만나니
나도 이제 늙나보다.
외진 마을 벗이 없어
스님 좋은 걸 알았다네.
때로 먼 산 바라보던 도연명 생각이 나서
한두 편 산경을 놓고 스님과 함께
얘기했네.

화사한 봄 날, 숲길을 따라 절에 도착한 선비가 스님을 만나 서로 마음이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고요하고 맑은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시다. 제목은 ‘봄날 백련사에 가 놀다(春日遊白蓮寺)’이며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5권에 실려 있다. 이 시는 다산이 혜장 스님을 처음 만난 날을 묘사한 것 같다.

다산이 쓴 혜장스님의 탐명(塔銘)에 “하루는 내가 야로(野老)를 따라 신분을 감추고 가서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한나절까지 이야기했으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정약용이 강진으로의 유배 당시 머물렀던 다산초당. 백련사 동백 숲길을 걸어 900여 미터 지점에 있다.

못했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차 한 봉지에 얽힌 이야기

다산은 백련사를 오가며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대부분 혜장 스님이 등장하는데, 둘의 교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알게 해 준다. ‘혜장이 날 위해 차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그의 문도 색상이 나에게 무얼 주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고 말았으므로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여 주도록 끝까지 요구하였다(藏既爲余製茶 適其徒隨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以徹卒患)는 제목의 시도 있다.

여가적삼죽(與可昔簾竹)
탁옹금도명(一翁今 茗)
황이서다산(況爾棲茶山)
만산자순정(漫山紫筍挺)
제자의수후(弟子意雖厚)
선생에파남(先生禮頗冷)
백근차불사(百 且不辭)
양포시의병(兩苞施直粒)
여주지일호(如酒只一壺)
기득장불성(豈得長不醒)
이공인충차(已空彥沖茶)
고부미명정(辜負彌明鼎)
사린다과대(四隣多 筍)
유결장하증(有乞將何拯)
유응백간월(唯應碧澗月)
경토운중형(竟吐雲中滢)

옛날 여가는 대를 몹시 탐하더니
지금 탁옹은 차를 그리 즐긴다네.
더구나 그대 사는 곳 다산이기에
그산에 널린 것 자색순 아니던가.
제자 마음은 비록 후하지만
선생이 왜 그리 냉대란 말인가.
백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두 꾸러미 다 주면 뭐가 어때서
술이라도 한 병 가지고서야

오래 깨지 않고 취하겠는가.
연충의 오지그릇이 비어 있는데
미명의 술을 그냥 놀리란 말인가.
이웃 사방에 명든 자가 많은데
찾아오면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민노라 푸른 시내 위달이
구름 헤치고 맑은 얼굴 내밀 것을.

<다산시문집> 5권에 실린 이 시는 그 제목이 길지만,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차를 좋아 하는 다산은 혜장이 자신을 위해 덕은 차를 제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선물 받지 못하자 끝내 받아 내야만 일화를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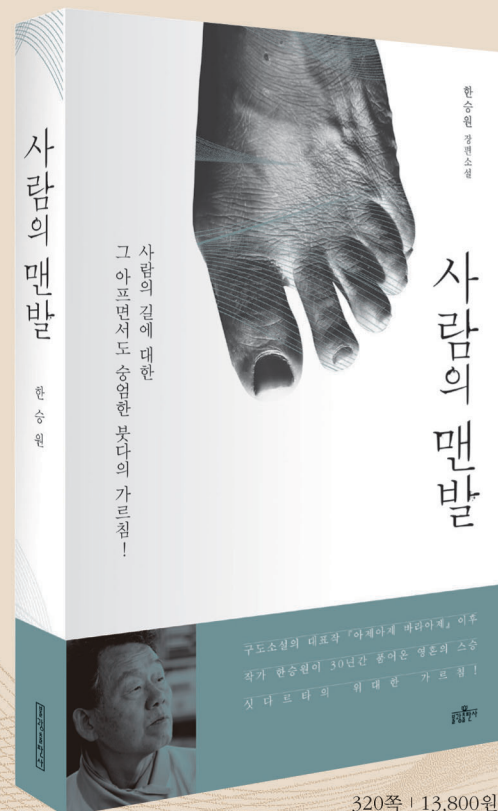
첫 구절의 ‘여가(與可)’는 송나라 때 대나무를 잘 그리기로 이름 난 화가다. 다음 구절의 ‘탁옹(一翁)’은 다산의 또 다른 호이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대나무를 잘 그린 화가 여가가 대나무를 탐하듯이 자신은 차를 좋아 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히는 것이다. 속이 상한 김에 자신의 취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이어서 차를 넉넉히 가지고 있는 혜장 스님이 제자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일부러 (나를 위해) 만든 차를 안주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눈짓도 필요 없다. 그러나 더러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하여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한다. 그레아 다음에 구차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 시대의 학문과 정신문화를 가일층 성장 시킨 다산과 혜장의 막역한 교유는 백련사의 또 다른 역사이고 재산이다. 다산은 혜장의 비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빛나는 우담발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필필 나는 금시조가 잠깐 앉았다가 곧 날아갔네.”

작가 한승원이 30년의 염원을 담아 그려낸 부처님의 생애!



사람의 길에 대한
그 아픈면서도
승엄한
부처님의 가르침

주요 언론사가 주목한 화제의 책!

“싯타르타가 맨발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설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소설” —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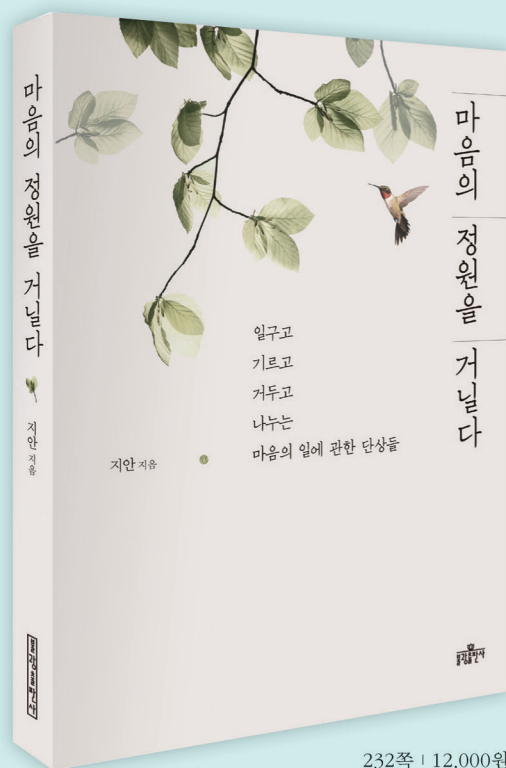
“붓다는 계급사회 없애려 출가” — 중앙일보

“맨발로 떠난 싯타르타의 출가 정신 되새겨야” — 동아일보

“붓다의 출가는 계급차별 철폐 위한 것” — 한겨레신문

사람의 맨발

한승원 장편소설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산속 스님의 응원 메시지

“산속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삼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를 바라는 대신 경기를 벌이는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어졌다.” — 「여는글」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정음

